

AI 물류 혁신, 쿠팡 물류센터의 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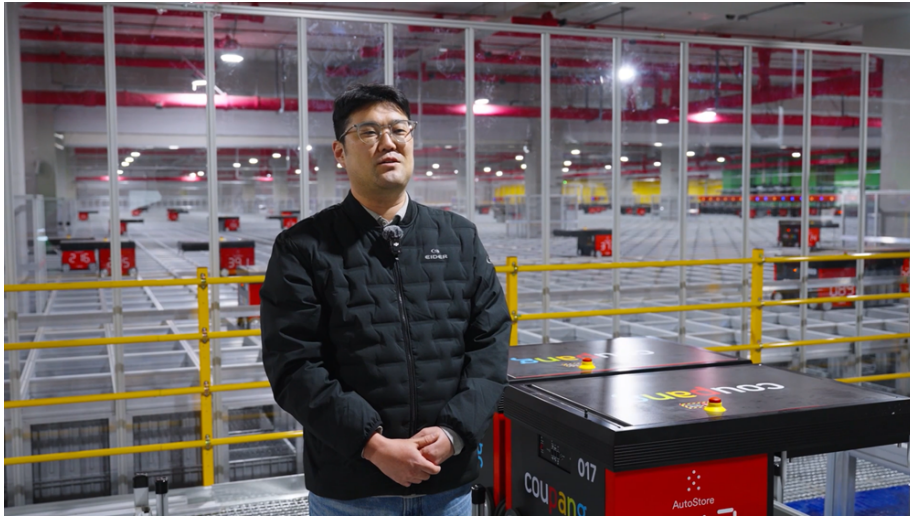
2026. 3. 23.

상품이 다양해지고 물량이 늘어날수록 물류센터 운영은 더 정교해져야 합니다. 현재 쿠팡 물류센터는 수직 적재 구조와 AI 로봇 시스템을 결합한 '오토스토어(AutoStore)'를 통해 기술이 사람을 돕고 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의 최신 현장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손끝에서 펼쳐지는 편리한 커머스, 그 속엔 수많은 계산과 정교한 물류 기술이 숨어있습니다. 주문량이 늘고, 선택선이 다양해질수록 고민이 커집니다. '어떻게 하면 물류는 더 효율적이고 사람은 더욱 편리해질 수 있을까?' 쿠팡은 물류 공간의 개념부터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쿠팡 풀필먼트센터 오토메이션 팀 박형배 님

“일반적인 물류센터는 주로 수평으로 확장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많은 공간 면적이 필요합니다. 저희의 가장 큰 과제는 이 많은 상품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관하고, 또 정확하게 집품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해답은 하나, 상품을 한 곳에 수평 수직으로 빈틈없이 촘촘하게 모아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류의 공간 프레임 자체를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 쿠팡 풀필먼트센터 오토메이션 팀 박형배 님



수직으로 적재된 수천 개의 빈. AI 기반의 로봇은 주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최적의 경로로 상품을 찾아냅니다. 정확도와 효율성은 시스템이 책임지고, 사람은 집품에만 집중합니다.



쿠팡 풀필먼트센터 오토메이션 팀 Vesa-Pekka Ukkonen 님

“AutoStore 시스템은 수백 대 로봇들이 동일한 속도로 피킹 할 수 있도록 빠르게 도와줍니다. 또 Goods-to-Person 방식의 자동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작업자의 안전을 높이고, 신체적인 부담도 줄여줍니다.” - 쿠팡 풀필먼트센터 오토메이션 팀 Vesa-Pekka Ukkonen 님



쿠팡 풀필먼트센터 현장 직원 이인숙 님

덕분에 실제 현장 작업자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고정형 워크스테이션에서만 작업하다 보니 작업환경 자체가 훨씬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 쿠팡 풀필먼트센터 현장 직원 이인숙 님





이처럼 쿠팡은 사람과 기술이 조화롭게 협업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로봇과 사람이 균형 있게 협업하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반복적이고 힘든 작업은 로봇이 맡고, 사람은 판단과 섬세함이 필요한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죠.” - 쿠팡 풀필먼트센터 오토메이션 팀 Vesa-Pekka Ukkonen 님



AI 기반 예측과 첨단 로봇의 자동화. 보이지 않는 기술의 진화는 고객의 일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꿉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